

지난해 부터 동양난 몇분과 洋蘭을 취미삼아 길러오면서 이제는 꽤 난초의 淸淸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옛부터 동양의 선비들이 즐겨 그렸던 동양화의 四君子속에 국화·매화·대나무와 함께 왜 난초가 포함되었는지 어렵듯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침 저녁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 푸른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좋을 뿐이다. 아마 자기가 좋아해서 몰두하는 세계를 無念無想의 상태라 한다면 난초라 꽃을 가꾸며 그 속에서 느끼는 잔잔한 기쁨이야 말로 그러한 세계가 아닐까 생각도 된다.

舊韓末 文人畫로 아주 뛰어났던 분이 그린 「黑蘭圖」를 보면 난초잎의 단아하면서도 힘찬 뻗임과 휘어지는 線에 담긴 힘과 몇송이 난초꽃의 오만한듯 빼어난 모습은 금방 지필묵속에 난초향이 배어 나올듯 하고 그림의 낙판에는 神品이라고 쓰여져 있다.

과연 난초의 고고한 品格도 그러 하려니와 그림 또한 뛰어나서 신품이라고 쓰기에 부끄럽지 않겠다고 느껴진다.

전에는 지상에서 蘭草同友會가 주최하여 난 전시회를 연다는 기사를 보면 그저 그런 모임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지만, 세상의 많은 취미중에서 푸른 난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한송이 작디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며 연푸른 새잎과 꽃대가 솟아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야말로 대밭에 부는 바람처럼 맑은 청아함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초나 꽃을 작은 정원에서나 집안의 창가에서 가꾸는 가장 큰 재미와 보람은 첫째 푸른 생명의 싹과 늘 같이하고 있음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작은 花園의 공간속에는 푸른 생명의 고결함이 숨쉬고 있으며 세상풍진사를 잠시 잊고 난과 꽃을 보고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먼산 위에 떠도는 흰구름을 잠시 바라보는 사색의 여운이 거기 있음이 값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대한 섭리와 생명의 신비는 난초의 청아한 그 한잎속에 푸른 빛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누가 말했는가. 한잎의 단풍잎속에 만천하에 가을이 온다고 -.

또한 난을 기르며 크게 깨달은 것의 하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력의 강인함이라 할까 그런 것이다. 난은 맑은 물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주어야 하고 딱 식물과 같이 거름기 있는 흙을 싫어한다.

화분에 담긴 큰 모래알과 같은 돌 조각에 뿌리를 내리고 그 돌조각이 흡수한 적은 수분을 빨아드리면서 마치 청빈한 선비와 같이 고결하

蘭과 花草를 가꾸며...

辛 萬 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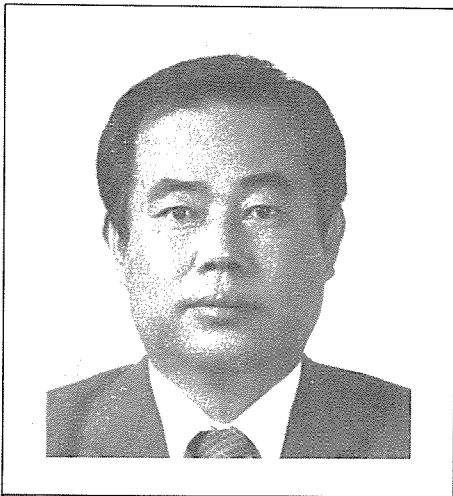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 副理事長〉

게 산다. 물이 많거나 거름기가 많으면 뿌리가 썩는다. 마치 사막속에서 자라는 선인장이나 이 름모를 식물이라고나 할까, 난은 환경의 부족함속에서 오히려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새싹을 틔우고 그 푸름을 지켜나간다.

토인비가 문명의 탄생과 흥망성쇠를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으로 설명한 것이 생각난다. 고대 인류문명은 왜 풍요로운 동남아 세아와 같은 자연환경에서 일어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지구의 북반부가 점차 건조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사냥이나 과일등으

로 자연 그대로 생존해 오던 인간이 나빠진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사막가운데 흐르는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모여 좋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백만년의 오랜 기간 최후의 일만년전에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강가에서 신석기시대의 농촌문명이 탄생하였고 科學史家들은 이를 최초의 농업



혁명이라고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화분속에서 무심코 자라는 난초에서 인류문명사를 유추함은 너무나 큰 비약은 아닐런지 모르겠다.

지난해 겨울이다. 가시가 없이 즐기처럼 뻗어가는 선인장을 낮에 따뜻한 햇빛을 쬐어 주려고 밖에 내어 놓았다가 깜박 잊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선인장은 추위에 다 얼어 죽었다. 힘없이 축 처진 잎줄기를 만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즐기중 아직은 살았을지도 모르는 단단한 즐기 셋을 가위로 잘라 화분에 심어 놓

고 때가되면 물도주곤 하였다.

그런데 선인장은 더 시들지 않고 자라지도 않으며 푸름을 유지한채 잠자는 생명인양 반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다. 내 마음은 그 선인장에 특별히 마음이 쓰여졌고 짧은 지식으로 식물의 성장점은 잎끝에 있는데 이것이 모두 잘려나가서 그런가 생각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두달 전에 파란 작은 줄기들이 동시에 여러개가 솟아났다. 나는 순간 너무나 큰 기쁨으로 놀랐다. 생명력의 끈질김과 살려고 하는 의지와 종족을 존속시키려는 그 힘앞에서 숭고함과 엄숙함을 느꼈다.

그 선인장은 많이 자랐다. 그런데 새싹이 자람과 동시에 어미줄기는 모자라는 자양분을 새끼에게 주려는 듯 늙은 줄기는 조금씩 시들어가고 크기도 줄어들고 있다. 한 보잘 것 없는 버려졌을지도 모를 선인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명력의 존귀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의 영원한 尹東柱 詩人의 「序詩」가 생각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이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말함이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뜨거운 연민의 사랑이라.

작은 난잎에도 그리고 이름없는 들풀에도 고귀한 생명은 푸르게 숨쉬고 있고 알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한 섭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슈바이처박사가 자기를 희생하며 실천한 철학인 「생명에 대한 畏敬(Reverence for the Life)」의 뜻일지도 모른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엄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